



특집 : 4~11

한상은 '글로벌 코리아'의 힘...
 모국과 손잡고 지구촌을 뚫는다
 제11차 세계한상대회 47개국서 참가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 **종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종묘)과 세계무형유산(종묘제례)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종묘는 우리 역사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들은 궁궐을 세우면 조상에 대한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해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세웠다. 종묘는 왕의 선조들을 모시는 곳이다. 조선의 왕과 왕후는 죽은 뒤 몸은 능에 묻히고 혼은 이곳 종묘에 모셔진다.

종묘의 제실은 원래 7실이었지만 후에 늘어나서 정전과 영년 전에 역대 왕과 왕후를 모시고 있다. 정전 19칸은 동양에 있는 목조 건물 가운데 가장 긴 건물로 알려져 있다. 기둥들이 무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장엄한 광경 때문에 종묘를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말한다.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열리는 종묘제례는 500년 이상을 내려왔는데 동아시아의 왕실 제례 의식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례는 중국서 유래한 것이지만 중국은 이미 단절되고 없으며 우리 무형 유산 가운데 최초로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됐다.





목차 2012 11월호

- 2 **한국의 얼**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 증묘
- 3 **목차**
- 4 **특집** 한상은 '글로벌 코리아'의 힘...
모국과 손잡고 지구촌을 뒀다
- 12 **기획** 고난 극복의 역사 통해 한민족 자긍심 배우다
동포 장학생 112명 경남 일대서 역사문화체험
- 14 **한민족공감**李大통령 “GCF유치, 인류공동의 과제 해결 역할” 외
- 16 **현장의 목소리** “국제결혼한 한인여성 50만 명 세계 각국의 우리 민간 외교관”
제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충남 예산서 열려
- 18 **한글학교 탐방**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글학교 한인 자녀 ‘눈높이 교육’ 30여 년
- 19 **글로벌 코리아** 美 ‘위안부 결의안’ 주역 애나벨 박
“일본인의 자발적 인식 변화 유도가 중요”
- 20 **OKF뉴스** 청년기로 성장한 재외동포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 외
- 22 **동포 이민사** 차별과 맞선 불굴의 100년 ‘재외동포’
- 23 **동포문학** 알래스카
이월란(미국, 2011년도 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 24 **나의 살던 고향** 가을이 그려놓은 풍경화... 정선
-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제11차 세계한상대회는 영비즈니스리더의 가능성과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한상은 ‘글로벌 코리아’의 힘...

47개국 3천명 참가 뜨거운 교류·협력

한민족 최고의 비즈니스 축제, ‘제11차 세계한상대회’가 ‘글로벌 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47개국에서 활동하는 내외동포 경제인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1억 5천700만 달러 이상의 상담 실적을 올리며 성황리에 열렸다.

재외동포재단과 서울특별시와 공동 주관한 이번 한상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교류와 수출 상담으로 대회를 뜨겁게 달궜다.

이번 대회는 한상이 경제위기 속에서 글로벌 코리아를 견인하는 동력을 알렸고, 영비즈니스리더의 가능성과 한상 네트워크가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동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이번 한상대회는 기존 대회와의 차별화를 추구했다”며 “세미나·포럼·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단순 네트워킹을 넘어 한상과 국내기업 간의 멘토링 구축으로 한상 네트워킹 실효성을 한 단계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에는 조병태 한상대회장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한상대회는 이제 한인 최대의 경제 교류의 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며 “한상 여러분들이 더 커진 조국 위상을 활용하면서 앞으로 계속 분발해주길 바라며, 모국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를 지극한 곳곳에 확산시키고, 한상 여러분의 발전을 지원해 한상과 모국의 중소기업인들이



- 1 '제11차 세계한상대회'가 '글로벌 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47개국에서 활동하는 내외동포 경제인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6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2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에는 조병태 한상대회장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 3 김황식 국무총리는 개막식 축사에서 "한상대회는 이제 한인 최대의 경제 교류의 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 발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모국과 손잡고 지구촌을 뚫는다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도 힘 쓰겠다"고 약속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날 개막을 선언하며 "이번 기업전시회는 국내 우수제품이 한상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나아가는데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국가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우리 한민족은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강인한 민족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상대회를 통해 서로 에너지를 나누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 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세계 한상대회도 사람을 남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병태 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한상대회는 모든 재외동

포 경제단체들이 국가와 소속단체를 떠나 자유롭게 참여해 네트워크하며 즐길 수 있는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이자 축제"라며 "한상들이 한상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불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이어 오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한상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는 한상 FTA 포럼과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정책 및 성공 사례 등을 설명하는 서울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이밖에도 리딩CEO포럼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등도 열렸다. 어운대 KB금융지주 회장은 리딩CEO포럼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12차 세계한상대회는 내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다.

해외진출 첨단 전략 조목조목 토의

업종 세미나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

세계한상대회 이틀째를 맞아 '산업분야별 비즈니스네트워킹세미나', '한상 초청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IR쇼', '멘토링세션',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회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17일 오전부터 열린 '산업분야별 비즈니스네트워킹 세미나'는 SNS 및 스마트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첨단트렌드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분과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식품·외식 분과에서는 '글로벌 외식시장의 마켓센싱(Market Sensing)을 키워라'를 주제로 열렸다. 이미 성공을 거둔 국내 외식기업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국내업체에게 검증된 세계화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패널토의에서는 국내 외식업체/브랜드의 해외진출 성공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미주(미국), 아시아(미안마), 아프리카(에티오피아)로 나누어 멘토링세션이 진행됐다.

유홍근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상임회장은 "한국의 맛을 산업화시킨 한국의 음식문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신성장분야라고 본다"며 참여한 한상들에게 한식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이재우 불고기 브라더스 대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식은 손맛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계량된 음식과 레시피를 마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할리스 F&B의 신상철 대표이사는 "할리스의 성공은 마켓리서치를 통한 현지화 전략과 할리스 브랜드 마케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밝혔다.

첨단트렌드산업 분과에서는 '한류의 확산과 첨단미디어 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이사는 "한 번 쓰고 지워버리는 앱이 아닌 데일리 앱을 개발하자는 마인드로 시작해 국내에서는 '문자해~'가 '카톡해~'로 바뀌는 문화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성공했다"며 자신의 성공비결을 전수했다.

섬유·패션 분과에서는 '글로벌 섬유·패션 코리아: 진출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 섬유·패션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과 글로벌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첨단트렌드산업 분과에 참가한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이사는 "데일리 앱을 개발하자는 마인드로 시작해 국내에서는 '문자해~'가 '카톡해~'로 바뀌는 문화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성공했다"며 성공비결을 전수했다.



업종별 세미나 중 비즈니스서비스 분과에 참여한 한상 및 국내 기업인들이 진지하게 강연을 듣고 있다.

강태선 블랙야크 대표는 "블랙야크의 글로벌화 전략은 철저한 차별 마케팅이었다"며 "전문적인 히말라야 오리지널 마케팅 전략으로 국내에서의 입지를 다졌으며, 중국에서는 '블랙야크도 만리장성을 지킨다'는 이미지 공략 등 현지화 전략으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서비스 분과에서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마케팅 성공전략'을 주제로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제도 안내에서부터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전략, SNS를 활용한 해외비즈니스 활성화 전략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됐다.

45세미만 젊은 한상들 “우리가 침병”



동포재단은 한상대회의 미래를 이끌 영비즈니스리더의 네트워크에 심혈을 기울여 리딩CEO와 영비즈니스리더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차세대 영비즈니스리더포럼

개막 전날인 10월 15일에는 영비즈니스리더 네트워크 골프대회와 영비즈니스리더의 밤이 열렸다. 영비즈니스리더의 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차세대 한상들의 만남 자리다. 동포재단은 45세 미만 젊은 한상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영비즈니스리더포럼을 매년 한상대회 기간 중에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부모를 따라 외국으로 이민 가 현지 정착에 성공한 2, 3세대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 각국에서 120여 명이 모였다. 역대 최대 참가로 그동안 차세대 육성에 꾸준히 힘을 쏟아온 결과다.

16일 영비즈니스리더포럼에서는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그룹 회장과 민복기 EXR 대표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젊은 한상들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비즈니스리더 네트워크(YBLN)를 만들었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인 페이스북에서 대륙을 넘나들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고 있고, 대륙별 모임과 상반기 세미나를 통해 스킨십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상대회는 차세대 주자인 젊은 한상들에게서 한상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신임 YBLN 회장으로 선출된 고해정 케이프란 그룹 대표(44)는 “한상대회를 통해 한국에서 분식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스쿨푸드 점포 30개를 도쿄에 열 수 있게 됐다”면서 “젊은 한상 네트워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기회”라고 말했다.

올해는 알렉산드르 텐(34) 씨를 비롯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상 10명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행사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은 그동안 소외됐던 CIS 지역에도 한상의 싹을 틔우겠다는 목표로 이 지역 젊은 경제인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대형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텐 씨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고려인상공인 협회’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영비즈니스 리더들은 나눔에도 솔선수범했다. 이들은 지난해 포럼에서 많은 사업가들이 모이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해 수녀들이 고아 여자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테레사의 집’을 후원하기로 해 피아노를 기증했다. 올해는 영비즈니스리더 골프대회를 열어 400만 원을 모금했다 18일 저녁에 영비즈니스리더 폐막만찬에 수녀님들과 아이들을 초청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원 일부는 학용품 등 용품 후원을 하기도 했다.

해외 바이어들 국내기업과 1대1 미팅

수출상담회 괄목할 성과 올려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통 바이어들을 만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었다.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16일부터 열린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해외 유통 바이어 50여명은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 상담회에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과 1대1 미팅을 가졌다. 모두 500여건의 상담 중에 88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고 215건은 재상담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좋았다는 평이다.

상담회에 참가한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라쿠'의 김지운 씨는 "10개 중소기업과 상담을 했는데 3개는 당장 일본 시장에 내놓아도 통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만족해했고, 중국과 호주,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유통을 하는 'G찰스인터내셔널무역'의 이경철 대표도 "방향제와 탈취제를 제조하는 한국 업체를 만나 함께 중국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고 좋아했다.

국내 중소기업 참가자들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국내 대형할인마트 시장의 황포를 참으며 기업을 운영했던 이들에게는 모처럼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었던 것.

유리창 청소기 제조업체 'ibp'의 윤성옥 이사는 "제품 샘플과 설명서를 보내고 미팅 요청을 해도 반년 넘게 '검토중'이라는 대형 할인마트의 답변만 들어와 답답했는데 해외 바이어들이 먼저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해와 무척 고무돼 있다"고 전했다.

해외 바이어들은 상담과 계약 뿐만이 아니라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을 염두에 뒀야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상담회를 주관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최규진 마케팅지원 본부 주임은 "해외에 나가려는 중소기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적합한 업체들을 바이어와 연결해줬기 때문에 실제 계약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간 진행된 '제11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는 국내외 동포 경제인 상호간 실질적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시키는 한상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기업과 한상과의 수출계약이 이뤄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상들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1대1 미팅을 하고 있다. 모두 500여 건의 상담 가운데 88건이 그 자리에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고 215건은 재상담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좋았다는 평이다.



기업전시회에서는 기업경쟁력과 비즈니스 안정성이 검증된 353개의 업체와 기관에서 392개의 부스를 운영해 보다 내실 있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기업전시회에서는 기업경쟁력과 비즈니스 안정성이 검증된 353개의 업체와 기관에서 392개의 부스를 운영해 보다 내실 있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비즈니스 상담 실적과 관련해 "상담 건수는 전년도 4천657건에 비해 약 12% 늘어났고, 상담 금액은 1억5천700만 달러로 전년도 2억 6천 400만 달러 보다 약 40%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처럼 상담 건수가 증가한 반면, 금액이 줄어든 것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상 토크 콘서트'를 새롭게 선보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상 리더십을 주제로 콘서트에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오스트리아에서 온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기부천사 선이 참여했다.

“조국 사랑, 생명체 사랑, 창조에 대한 사랑으로 한국인의 특성 살리면 글로벌 리더가 됩니다”

‘토크 콘서트’ 한상 리더십 논의

“한상(韓商) 여러분이 세계 각국에서 현지인은 못하고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온리 원(only one)’이 되면 곧 ‘베스트 원(best one)’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18일 제11차 세계한상대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상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 한상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 장관은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가치로 ▲고향, 고국에 대한 사랑 ‘토폰필리아’ ▲생명체에 대한 사랑 ‘바이오피리아’ ▲창조에 대한 사랑 ‘네오필리아’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한상들에게 “한국인이 한국 안에서 하지 못한 것을 지구를 무대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분들”이라며 “세계 어디에서 살든 이 보편적인 세 가지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인만의 특성을 글로벌화한다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한상 대표인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



한상에게 강연하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장,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가수 선과 함께 한류의 확산과 한상의 역할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회장은 “한류의 밑바탕에는 40~50년 전 해외에 나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주류사회에 적응해온 한상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한국 문화예술 덕분에 한국 제품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면 한상의 발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은 “예전에는 한국 제품을 팔려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을 뒤에 숨기고 품질이 앞장서야 했는데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일단 품질을 인정받는다”며 “많은 한상분들의 수많은 땀과 노력으로 조성된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문화가 더해져 질 높은 한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글로벌 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란 주제 아래 재외동포재단 주관으로 열린 제11차 세계한상대회는 이날 토크 콘서트와 폐회식을 끝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창**



미용용품 벤스뷰티서플라이 임병주 회장

“미국 흑인여성 미용 책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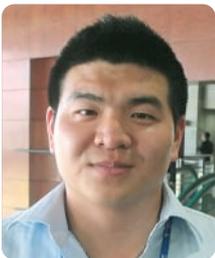
뷰티 서플라이는 화장품, 염색약, 가발, 각종 액세서리 등 미용 관련 용품을 취급하는 사업으로 미국 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매장이 8천500개에 달한다. 전체의 80~90%에 해당하는 규모다.

뷰티 서플라이가 재미 한인의 대표 사업분야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70~80년대 세계시장을 장악한 한국 가발산업의 영향력과 더불어 일찌감치 관련 업계를 개척한 임병주(72) 벤스(Ben's)뷰티

서플라이 회장의 역할이 컸다.

휴스턴,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세 군데 사업장에 450여 명의 직원을 둔 최고 연매출 1억 달러를 올리는 임 회장은 “뷰티 서플라이 산업, 특히 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산업은 불황 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연내 한국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는 임 회장은 “국내 미용산업은 기술 면에서나 환경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유통 부문이 취약하다”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서민들도 소매 유통에 뛰어들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최연소 한상 유진호 케이피프그룹 대표

“맨주먹으로 시작 매출 200억 원 일구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연간 228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일군 20대 한상(韓商)이 있어 한상대회기간 주목을 받았다.

주인공은 호주 캔버라시의 건물 내·외장 공사 시공업체인 ‘케이피프그룹’의 유진호(26) 대표. 그는 연간 2천만 호주달러(약 228억 원)를 벌어들이며 이 업계에서는 캔버라시 1위, 호주 전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11차 세계한상대회에 최연소 한상으로 참가한 유 대표는 “근

면과 성실로 노력한 결과가 이제 서서히 빛을 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4세 때 가족과 함께 호주에 이민한 그는 빵 가게와 식당 일 보조, 클럽 경비원, 옷가게 점원 등을 하면서 고등학교 학비를 마련했고 캔버라대 졸업 후 페인트칠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장과 타일공사 등 내·외장 공사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호주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경쟁기념관 확장공사에도 참여했다”며 앞으로는 단독주택 내장재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미니카 발전업체 최상민 ESD 사장

“아이티에 발전사업으로 불 밝힌다”

진도 7.0의 강진이 중앙아메리카 아이티를 덮친 직후 아이티 복구에 손발을 건어붙이고 도운 덕분에 정부의 신뢰를 얻어 사업이 크게 늘어났다는 최상민(36) ESD 사장은 발전업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아이티 수도 기준으로만 보면 전체 전력 공급량 120mw의 절반을 ESD가 담당하고 있다.

최 사장은 아이티와 도미니카는 물론 조국 한국의 어려운 이웃

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비정부기구(NGO)와 손을 잡고 아이티에 학교 두 곳을 지었고 도미니카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현지인 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무료 급식을 담당하는 단체에도 매월 1만 달러씩을 기부한다.

최 사장은 “발전 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중남미에 도입해 건강검진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로 뻗는 아제르바이잔 한인 건설 기업

10개국 5천억 원 수주 최웅섭 포유 사장

카스피해 연안의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을 근거로 사업을 펼쳐 온 한인 기업이 유럽과 남미,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무역회사 '포유'와 전광판회사 '울트라비전바쿠'를 경영하는 최웅섭(56) 사장은 지난 2000년 이곳에 진출해 외국인에게는 배타적인 환경을 뚫고 지난해 4억2천만 달러(한화 약 4천664억 원)

의 매출을 올렸다.

이 회사는 올해 유로비전 송 페스티벌의 메인무대가 된 '토틱 바흐라모브 스타디움' 리모델링을 8천200만 달러에 계약해 완공했다. 최 사장은 "올해 축구장 신축 2건과 리모델링 1건, 전광판 사업 등 4억5천만 달러(약 4천997억 원)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포유장학재단'을 설립해 국내 대학생 15명에게 장학금 3천만 원을 지급했고, 아제르바이잔에도 '포유엔지오'를 설립해 20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냈다.



“한국 없이는 오늘의 조선족 없다”

'신발왕' 이성국 이조그룹 회장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신발왕'으로 잘 알려진 이성국(60) 이조그룹 회장은 그룹 산하에 30여 개의 한중합작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자금난에 시달리던 국내 영세 신발제조업체와 동업 관계를 구축해 설립한 것들이다. 이러한 합작을 통해 이 회장은 그룹의 덩치를 키워오면서 동시에 국내 기업의 회생도 도울 수 있었다.

이 회장은 “한국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조선족의 위상이 높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힘줘 말한다.

연간 200만 켤레 이상의 신발을 생산하며 동북 3성의 신발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 회장은 기술력이 있고 성실하지만 자금력이 없는 한국 기업인을 만나면 자금을 투자하고 중국 현지 사무실과 공장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장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만 뽑아가는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기술이란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오래 지속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은 항상 한국과 함께 가며 동반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미수교국 쿠바 빗장을 열다”

한인 1호 기업 김동우 암펠로스 회장

“달힌 땅’ 쿠바가 문호를 전면 개방하기 전인 지금이 기회입니다.”

17년 전 한국산 안경테를 들고 겁 없이 쿠바 국경을 넘어 빗장을 연 김동우(50) 회장은 용기 있게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한 사업가이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쿠바에 진출해 의료기기, 발전기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유통하는 ‘암펠로스 그룹’을 경영하며 연간 3

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쿠바 한인 1호 기업’인 셈이다.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 특성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꾸준히 신뢰를 쌓아올린 덕분에 시장을 뚫을 수 있었다는 김 회장은 “최근 쿠바 시장을 선점하려는 해외 자본의 진출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에 ‘투자 적기’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암펠로스는 쿠바뿐만 아니라, 니카라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한국 등 10개 지역에도 진출해 추가로 연간 1천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장]**



재외동포재단은 러시아와 중국, CIS, 중남미 지역 등에서 온 11개국 112명의 초청 유학생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경남 일대서 모국역사문화체험 투어를 실시했다.

고난 극복의 역사 통해 한민족 자긍심 배우다

재외동포 장학생 112명 경남 일대서 역사문화체험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11개국 112명의 동포 유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투어에 나섰다.

재외동포재단은 러시아와 중국, CIS, 중남미 지역 등에서 동포 유학생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진주와 통영, 거제, 부산 등을 돌아보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2012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돼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학생에서부터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이뤄진 이들은 경상남도의 깊은 가을 풍광에 탄성을 자아냈다.

2일에는 경남 진주에 들러 진주성과 국립진주박물관을 답사했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호남 진출을 막던 중요한 방어기지였다. 김시민 장군을 비롯한 군인들과 백성들이 일당백으로 성을 사수했고, 끝내 대군에 의해 함락돼 모두 전사한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은 이들의 숭고한 애국심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투어 둘째 날에는 통영에서 배를 타고 한산도 제승당(制勝堂)을 견학했다. 임진왜란 당시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일본의 조선 정벌을 접게 만든 명장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 곳으로 전쟁 당시 수군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중국 대련해사대학에서 선박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대학원 공과대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김해빈(23) 씨는 “3천 명으로

2만 명이 넘는 일본군을 이겨낸 진주대첩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침략당한 역사는 아픈 과거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잘사는 것을 보면 역사로부터 배워서 발전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남해 절경에 감탄... 해양강국 현주소 실감

참가자들은 역사기행 전문 여행사에서 나온 안내자들의 안내를 받아서 진주와 거제, 부산에서 한국의 역사를 비롯해 현재의 모습까지 다양한 유래를 들으며 현장을 체험했다.

거제시에서는 해양조선문화관에 들러 세계 톱인 해양강국의 현주소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한려해상공원 등 자연과 풍광 속에 감추어진 남해안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다와 잇닿은 천혜의 절경에 감탄하다가 힘겨운 가운데 땀뻘이 이어져 온 전통과 자부심에 가슴 벅차기도 했다.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한산도의 제승당(制勝堂)에서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활약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행사 참가자들은 모두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내 각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로 학사과정을 비롯해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우수한 동포 학생을 선발해 모국 유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정체성과 세계화된 지식과 사고를 하는 인적 자산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장학사업은 중국, CIS 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우수 동포 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을 통해 동포사회 역량을 키우고 고급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나는 고려인 4세... 뿌리에 대한 관심 높아

이번 참가자들은 현재 학사 및 석·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거나 내년에 입학예정으로 학문의 심화라는 목표와 선조의 고향을 직접 접해보려는 뿌리에 대한 갈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하였다 고 한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소수만을 선발하는 장학생에 선발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살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불가리아에서 유학 온 강캐시(20·서울대 인문계열 2학년) 씨는 “불가리아에서 초중고를 다니며 12년간 공부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부끄러웠다”며 “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고 유학이유를 밝혔다.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예정인 어학연수 중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삼숫지노바 알리나(20) 씨는 “고려인 4세로 내 뿌리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당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립대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한인 대학생 친구들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을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포부를 말했다.

과테말라에서 온 유지현(18·서울대 경영학과 1학년) 씨는 “박물관과 유적을 돌아보니 대부분 한자로 쓰여 있어서 이제부터라도 한문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참가자들은 거제 해양조선문화관을 둘러서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인 해양산업에 대해서 배웠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송블라디슬라브(21·한국외대 국제학부 입학예정) 씨는 “임진왜란의 역사를 3D로 관람해보니 역사가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며 “5개월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도 서툴러 힘들었지만 친해지니 정이 참 많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부산에서는 부산근대역사관과 6.25 당시 정부 임시청사로 쓰였던 동아대박물관을 견학했다. 특히 동아대박물관에서는 임시청사로 쓰던 당시의 모습과 대통령 관저를 살펴보면서 불과 60년 전에 힘없고 가난했던 모국의 모습에 놀라워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역사문화체험은 임진왜란과 6.25 등 우리 역사에서 큰 고난의 시기에 대해서 현장을 보면서 배우고 동시에 제1의 항구도시 부산을 둘러보며 발전된 조국을 느끼는 시간으로 꾸몄다”며 “단순히 외관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왔는지 생각하는 투어”라고 소개했다.

모국역사문화체험 매년 프로그램 바뀐다

도미니카에서 온 이휘정(20·서울대 인문계열 1학년) 씨는 “거북선에 대해서는 한글학교에서 배웠지만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비롯한 한국의 수군이 어떻게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었는지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실감했다”며 “도미니카와 비교하니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동포재단은 2일 저녁에 만찬을 열어 2013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지침 설명회를 했고 3일 저녁에는 자유탐방 시간을 주어 학생들이 부산의 중심가인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을 돌아다니며 생생한 삶의 현장을 체험하게 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장학생을 대상으로 펼치는 모국역사문화체험은 서울과 지방에서 박물관, 민속마을을 견학 등 매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의 역사를 알리고 국토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며 또 유학생간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

李대통령 “GCF유치, 인류공동의 과제 해결 역할”

“한국, 기후변화 도전을 새로운 발전 기회 창출로”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30일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참석, 유치 성과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GCF 유치와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진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출범, 국가신인도 상승과 같은 ‘국격 상승’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GCF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인류의 공동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의무와 책임이 매우 크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GCF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며 김황식 국무총리,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송영길 인천시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 모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후 변화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사무국 유치 도시인 인천 송도 시민에게 더욱 축하한다”면서 “GCF 보다는 송도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언론이 쓴 것을 보니 GCF가 부동산보다 적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았다”고 말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국제통화기금(IMF)을 말할 때 나쁜 의미의 용어로 쓴다”면서 “그러나 GCF는 인류가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데 있어 가장 큰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1차로 1천억 달러를 모금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기금을 모은다”면서 “인천 송도에서 1년 365일 국제회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민·정·관계 인사들이 10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녹색성장의 리더, 더 큰 대한민국’ 행사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송도 유치를 축하하며 건배하고 있다.

가 열려 글로벌 국가와 도시가 된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발전경험과 녹색성장 미래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GGGI와 GCF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 소중한 재원이 전략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센터와 네트워크를 설립한다는 ‘더반 합의’에 따라 올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녹색기술센터(GTC)를 설립했다”면서 GGGI(전략)-GCF(재원)-GTC(기술)를 아우르는 ‘녹색 트라이앵글’의 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 역시 녹색성장을 이끌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각국의 주요 교육기관과 연계, 카이스트에 ‘녹색성장대학원’을 설립하고 녹색인재를 적극 육성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GCF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근거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정부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B)과 같은 기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보리 재진출 성공... 한국 위상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엔의 최고기구인 안보리에서 다시 활동하게 됐다.

지난 1996~1997년 임기에 이은 두 번째 안보리 진출로 한국의 외교 지평은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됐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과거보다 높아졌고 유엔 수장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15년 전보다 더 큰 역할을 안보리에서 한국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 재진출로 유엔 최고의 권력기구에서 진행되는 한반도 문제 논의에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의 권력 교체 일정과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

안정성 등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의미는 크다.

안보리는 결정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장 강력한 유엔 기구다. 안보리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영토·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증진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15년 전에는 개도국과 같은 위치였지만 지금은 선진국에 들어갔으면서 개도국과 연결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얼마나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공헌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재외 한인경찰관 12명 명예경찰 위촉



김기용 경찰청장이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에서 해외 한인경찰관에게 '명예경찰관'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한국인으로 태어나 이국땅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활약하고 있는 한인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한 제7회 해외 한인경찰 초청행사를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미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에서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양 동포들이다.

70년대에 부모가 탄광 노동자와 간호사로 이민, 독일에서 출생한 헤센주 경찰청의 김은옥 경위(32세·여)와 함부르크 경찰청의 문미연 경위(31세·여)는, 현재 경비·순찰·수사·국제공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1세 때

벨기에로 입양 후 현재 베스트르 경찰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옥련씨(34세·여), 5세 때 네덜란드로 입양 후 살인·강도·성범죄 등 수사분야 전문가로써 22년차 베테랑인 암스테르담 경찰국의 김양순씨(43세·여)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15일에는 경찰청 지하대강당에서 한인 경찰관들이 우리나라 경찰관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조직 쇄신·의식 개혁을 위한 치안시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기간 중 한인경찰관들은 DMZ, 경복궁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일선 지구대, 교통부서에서 한국 경찰을 직접 체험하는 등 고국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17일에는 김 청장이 한인경찰관 12명을 '대한민국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함으로써 향후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

“국제결혼한 한인여성 50만 명 세계 각국의 우리 민간 외교관”

제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 충남 예산서 열려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뤄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이 진정한 한국을 찾아 거주국과 모국 간, 다문화 가정 간,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세계 13개국에 퍼져 있는 국제결혼 한인 여성의 모임인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는 10월 9일부터 나흘 동안 충남 예산군 덕산면의 리솜스파캐슬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를 열었다.

국내 다문화 가정 후원

‘세계 국제결혼 여성을 하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

에서 참가자들은 미래를 향한 국제결혼 여성의 역할, 한국 전통음식 문화의 홍보, 한국내 다문화 가정과의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내 다문화 가정 2세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9일 개회식에는 천순복 총회장의 개회사와 국민의례, 김하운 세계대회 준비위원장, 김예자 고문, 김혜일 이사장, 은영자 수석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내빈 소개, 축사, ACA다문화학교 학생의 미국 문화체험 소감 발표순으로 전야제를 겸한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만찬을 주최한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여덟번째를 맞는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를 통해 그동안 각지의 국제결혼 여성들이 우리 문화의 전달자로서 민간외교관 역할

을 십분 발휘해 왔다”며 “전세계 어느곳에 거주하든 자랑스런 대한민국인 딸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믿는다”고 격려했다.

또 2부 무대로 마련된 각 지회별 장기자랑 등 회원 친목의밤 행사가 시종 밝은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다.

10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의 외국인학교 ACA(교장 제임스 강)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들이 특별초청돼 여름방학 동안 미국을 방문해 문화체험을 한 소감을 발표했다.

대회에 초대받은 ACA의 진 신(Jin Singh) 학생은 지난 7월 3주간 김하운 준비위원장의 시애틀 자택에서 영어 공부와 함께 미국문화를 체험했고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진 신 학생은 시애틀에서 배운 영어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멋진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세계 국제결혼 여성을 하나로

World-KIMWA는 매년 국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10일 ACA에 장학금 1만4천 달러(한화 약 1천560만 원)를 전달했다.

이들은 World-KIMWA와 자매결연한 이주여성단체 ‘토크투미’에도 후원금 1천 달러를 기부했다.

World-KIMWA는 매년 이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여름방학에 미국으로 초청해 문화체험을 시켜주고 있다. 국내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성들에게도 경험을 들려주고 조언하며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대회는 각국 지회의 성공 사례와 활동 현황 발표, 그룹 토의, 유명인사 초청 특강, 충남지역 관광지 방문, 한국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천순복 회장은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한인 여성은 50만 명에 달하고 가족과 친지 등은 모두 친한파(親韓派)이자 지한파(知韓派)”라면서 “국제결혼한 한국의 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기에 우리를 무한한 인적 자산으로 여기고 키워준다면 열정을 쏟을 각오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우리는 각국에서 생활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하나로 모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정보를 교류해왔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rld-KIMWA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호주,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 등 13개국 32개 지회에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둔 단체다.

천 회장은 “각국에서 국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며 얻은 경험과 지식을 국내 다문화가정에 전해주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유대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혼혈인들이 차별 없이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11일 충남 예산의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World-KIMWA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차기 회장에 선출된 은영재(64) 현 수석부회장은 “지금까지 각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조직을 확대하면서 국내외에 단체를 홍보하는 일에 주력해왔고 이제는 사업을 구체화할 때가 됐다”고 포부를 밝혔다.

은 회장은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친한파(親韓派)’인 남편과 자녀, 친지와 이웃들에게 동해 표기의 정당성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국제법적 사실을 알려나가도록 교육하겠다. 그리고 서명작업이나 항의 편지 보내기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수석부회장은 “여성이면서 어머니이고, 현지에 동화돼 살아가면서 ‘한국 홍보대사’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국제결혼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박종범 재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서효석 편강한의원 원장이 만찬과 오찬 등을 지원했다. **장**



- 1 제8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의 리솜스파캐슬에서 전세계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대하게 열렸다.
- 2 개회식에는 천순복 총회장의 개회사와 국민의례, 김하운 세계대회 준비위원장, 김예자 고문, 김혜일 이사장, 은영재 수석부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내빈 소개, 축사 등에 이어 2부에서는 장기자랑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 3 10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의 외국인학교 ACA(교장 제임스 강)에 장학금 1만4천 달러(한화 약 1천560만 원)를 전달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글학교 한인 자녀 ‘눈높이 교육’ 30여 년

1980년에 설립된 ‘비엔나 한글학교’는 한인 자녀들의 현실에 맞춘 ‘눈높이 교육’을 30년 넘게 실시해오고 있다. 학생 85명에 교사 12명으로 유치반과 중등반 외에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나래반을 운영하고 있다.

강순희 교장은 “올해는 지난 5월 3일 개관한 오스트리안 한인 문화회관에 2학기부터 한글학교 입주를 비롯해 새 교과과정을 편성 등 굵직한 일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는 2세 자녀들이 한국어 학습을 비롯해 한국과 더욱 친숙해 지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시간을 활용해 4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약간의 수업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재원은 한인 기업인들의 기부금, 한인 사회 후원금, 재외동포 재단의 지원금과 학부모들의 바자회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1학기에는 야외 소풍과 백일장을 열고 있으며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 상담을 한다. 2학기에는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뽑내는 문집 발간과 학예발표회가 있다.

학예발표회는 한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응용하고자 작은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서양음악과 우리음악을 함께 발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사물놀이와 합창 발표도 열린다. 이 행사에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 부모들의 호응이 무척 높다.

강 교장은 “학예발표회는 한인사회 축제가 되고 있다”며 “한인 사회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잔치로 경로사상과 동포애를 느끼는 기회의 장이다”고 자부했다. 유아반은 어린이들의 관심에 맞게 낱글자에서 통문자 만들기, 색채를 통한 글씨 감각 익히기, 노래 등 놀이를 통한 수업을 진행한다.

유치반은 모음과 자음을 결합하여 읽기, 쓰기 등을 음악 및 미술 등 여러 교재를 활용해 한글을 익히고 있다. 2~3년의 유치반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교과서를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나래반은 우리 전통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교재로는 재외동포용 교과서와 독일



1 지난 5월 26일 오스트리아 도나우공원으로 비엔나 한글학교 학생들이 봄 소풍 행사를 했다.
2 9월 8일 새로 입주한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2012년 2학기 개학식 행사.

어권 교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재를 활용한다. 초등반과 중등반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모국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지 않도록 무리하게 교과 과정을 주입하고 있지 않는 게 특색이다. 아이들이 이중 언어의 사용으로 국경교과 과정을 모두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걸 교사들이 주지하고 재외동포용 교재를 함께 사용해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학교는 한인문화 회관 입주로 보다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다양한 시청각교재, 독서교실, 보충학습반 등도 운영하게 됐고 학생들에게 학교에 나오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강 교장은 “한글학교 교사를 하려면 우선 한글을 사랑하고 전문적인 책임의식이 강해야 한다”며 “다국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교사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학교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수법 교환과 자료 수집 및 재외동포재단 초청 교사 워크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장**

美 ‘위안부 결의안’ 주역 애나벨 박

“일본인의 자발적 인식 변화 유도가 중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일본인들을 이해시켜 자발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07년 7월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큰 역할을 했던 재미동포 2세 시민운동가 겸 영화감독 애나벨 박(박소현·43)이 고국을 방문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일본을 잘못했다고 몰아세우기만 하는 것은 일본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일본인에게 사람 대 사람으로 접근해 위안부 문제 뿐만 아니라 전쟁의 경험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이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일왕의 결정이지 국민의 자발적인 결정은 아니었고 여전히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들도 많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2008년 ‘우정과 평화’ 투어를 할 때 일본인들과 대화했던 경험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사과와 반성은 일본인들 스스로 마음에서 우리나라와지 단기간의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됐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력 관계를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2007년 7월 미국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모금 활동을 통해 워싱턴포스트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미국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문제이고 인권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위안부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중요한 이슈란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5년 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한 것이 결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는 “아베 전 총리가 다시 총리가 된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은 선거 때마다 위안부 문제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한일을 초월한 보편적 문제”라면서 “무엇이 옳은가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다큐 ‘스토리 오브 아메리카’를 준비중인 그는 수년 내에 아시아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 ‘고스트 오브 아시아’를 제작할 계획이다.

“2차대전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와 같은 충격적인 비극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평화가 오기 힘들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영웅”이라면서 11~12월께 일본 방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칠 계획도 전했다. **장**

청년기로 성장한 재외동포재단 창립 15주년 기념식



재외동포재단은 재단 창립 1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 참석자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맹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고문, 이구홍 전 이사장, 김경근 이사장, 김봉규 전 이사장, 이광규 전 이사장, 문하영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 대사.

재외동포재단은 동포들의 국내 활동을 돕고 차세대 동포를 육성하기 위해 재외동포교류센터의 건립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김경근 동포재단 이사장은 재단 창립 15주년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연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동포정책을 수립해 새로운 15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예산과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재외동포사회 지원 의지를 상징하는 재외동포교류센터 건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15년은 사람에 비유하면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로 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고 다시 힘차게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재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하영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 대사는 “동포사회는 재외국민 선거, 세대교체 가속화, 모국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 확대 등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재단이 이 같은 변화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50명 수준의 재단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을 늘려야 하며 외교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책 마

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봉규·이광규·이구홍 등 전직 재단 이사장과 함께 김병국 국립외교원장, 조대식 기획조정실장, 한충희 문화외교국장 등 외교부 간부, 임영상 재외한인학회(한국외국어대교수), 김중섭 경희대 국제교육원장, 허맹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고문 등 국내외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과 함께 열린 ‘2012 재외동포재단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에서는 ‘재외동포 의료서비스 개선방안-해외 사례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응모한 이화여대 김지영·이지영 씨와 ‘재중 유학생에 대

한 국내 인식 분석과 관련 제고방안 제시’로 중국 칭와대 정경진, 베이징대 이경진, 대외경제무역대 장우영 씨가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상은 ‘공생플랜을 통한 차세대 재외동포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한·중 수교 20주년 중국동포를 중심으로’(김영명 한국외국어대), ‘방문취업제에 대한 고찰-저숙련 노동인력 감소를 중심으로’(박정은·이우희 미국 유타대),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재외한인에 대한 고찰-CIS(독립국가연합) 지역 한인을 중심으로(허데니스 전주대·이선영 한국외국어대) 등에게 돌아갔다. 재단은 수상자에게 상장 및 장학금으로 우수상 각 200만 원, 장려상 각 100만 원을 수여했다.

10월 5일 한인의 날 기념해 동포재단 직원의 훈·포상의 수여식도 열렸다. 수상자는 정영국 감사역(국민포장), 한청희 기획실 차장(대통령표창), 윤혜선 조사연구팀 과장(국무총리표창), 하주미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팀 대리(외교부장관표창)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 30일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지원 전담기관으로 설립됐다.

한류열풍 타고 '사할린 한인 축제' 열려



한인 축제는 오페라·국악·에스트라다 공연, 한국 현대미술전시회, 한글날 기념 백일장, K-팝 뮤직 쇼, 한식축제, 한국 전통 음악과 춤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하게 열렸다.

사할린 최초의 '한류 축제'가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열렸다.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제1회 사할린 한국문화축제, 한류열풍' 축제는 오페라·국악·에스트라다 공연, 한국 현대미술전시회, 한글날 기념 백일장, K-팝 뮤직 쇼, 한식축제, 한국 전통 음악과 춤 공연, 태권도 시범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축제 참가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한국 재외동포재단 김경근 이사장,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이양구 총영사 등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김 이사장은 축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지 동포단체 대표 및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현안과 한글학교 운영 현황 등을 파악했다.

사할린 한국문화축제는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사할린 주정부(문화부), 주유주노사할린스크출장소·교육원, 사할린주 한인회 등이 주최했다.

주요 행사로는 제566주년 한글날 기념 백일장, K-Pop Music Festival, K-Food Festival, K-Traditional Music Festival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케이팝 페스티벌은 고려인과 현지인 학생들의 열띤 참가로 대회를 뜨겁게 달궜다.

김 이사장은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임용군 사할린주한인회 회장 등 동포단체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인문화센터 운영 현황 등 이 지역 동포사회 현안을 파악했다.

이스라엘 공공외교 · 디아스포라 장관 초청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 11일 오전에 율리 요엘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공공외교 및 디아스포라 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 공공외교 및 재외동포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율리 요엘 에델스타인(Yuli Yoel Edelstein) 이스라엘 공공외교 및 디아스포라 장관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의 초청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방한했다.

에델스타인 장관은 10일 서강대 국제대학원에서 전 세계 35개국에서 유학 온 국제대학원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Israel Public Diplomacy and Diaspora Relations'에 대해 특강을 하고, 참석자들과 각국의 재외동포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1일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의 공

공외교 및 재외동포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민주평통 사무처와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했다.

이외에도 KF공공외교포럼 참석, DMZ·관문점 방문 등의 일정을 통해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및 공공외교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타 협력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포재단과 이스라엘 공공외교 및 디아스포라부는 지난 6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Global Village 2012(The Inaugur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spora-Homeland Partnerships, 6.11~6.13)'에서 재외동포사회 지원과 모국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의 폭을 넓힐 것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에델스타인 장관의 이번 방한으로 재외동포 및 공공외교 분야 등에서 한·이스라엘 양국 간의 교류협력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에델스타인 장관은 우크라이나 출생으로 현 이스라엘 총리인 벤야민 네타냐후의 과거 야당당수 시절 보좌관, 이민흡수부 장관 등을 거쳐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공공외교 및 디아스포라 장관을 맡고 있다. **장**

차별과 맞선 불굴의 100년 ‘재일동포’

지난 8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열도속의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재일동포 1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이 열렸다. 두 달 동안 15만 명이 사진전을 관람하는 등 이번 전시는 우리에게 생소한 재일동포를 알리는데 성공했다.

전시회에서는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생활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비롯하여, 열악한 환경과 차별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일본사회에서 당당한 한민족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즉, ‘재일동포 100년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했다.

재일동포의 역사는 일본의 식민 통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1910~20년대에 이루어진 조선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으로 생활기반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생계를 잇기 위해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1920년대 후반 이후 매년 8~15만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이후 부족해진 일본 내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 전역의 탄광과 광산, 토목공사 현장에 조선인이 동원되었다.

1945년 해방 후 일본에서 잔류한 재일동포가 약 70만 명. 이렇게 시작된 재일동포는 지난 100여 년간 일본의 혹독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한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재일동포는 90만 명에 달한다. 동포 1, 2세가 대부분인 다른 나라와 달리, 5세대까지 존재하는 재일동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산 증인들이다. 비록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내외적으로 많은 설움과 멸시를 받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한 동포 역시 재일동포다.

재일동포의 모국 사람은 6.25 전쟁 시 재일학도의용군의 참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88 서울 올림픽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 성금인 541억 원을 모아 고국에 기부했다. IMF 구제금융 시절에는 다시 15억 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

재일동포는 자신들의 출생지인 고국의 ‘고향’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제주도의 ‘감귤 묘목’ 도입, 대한민국 최초 경찰 사이드카 부대 창설 지원, 재일동포 투자로 만들어진 ‘구로공단’ 등 그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열도속의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8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재일동포 1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이 열렸다.



일본 야구계의 명인으로 우뚝 선 장훈 씨가 재일동포 후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있다.

재일동포 사회는 이제 백진훈 참의원을 비롯해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마루한의 한창우 회장 등 정·재계에 굽직한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다. 문화와 스포츠계에서도 재일동포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일본 야구의 명인 장훈, 세계적인 바이올린 장인 진창현 등 오로지 실력만으로 차별 속에서 우뚝 선 인물들이다.

재일동포사회는 최근 일본 사회에서의 ‘정주와 공생’을 목표로 지역 사회 봉사를 비롯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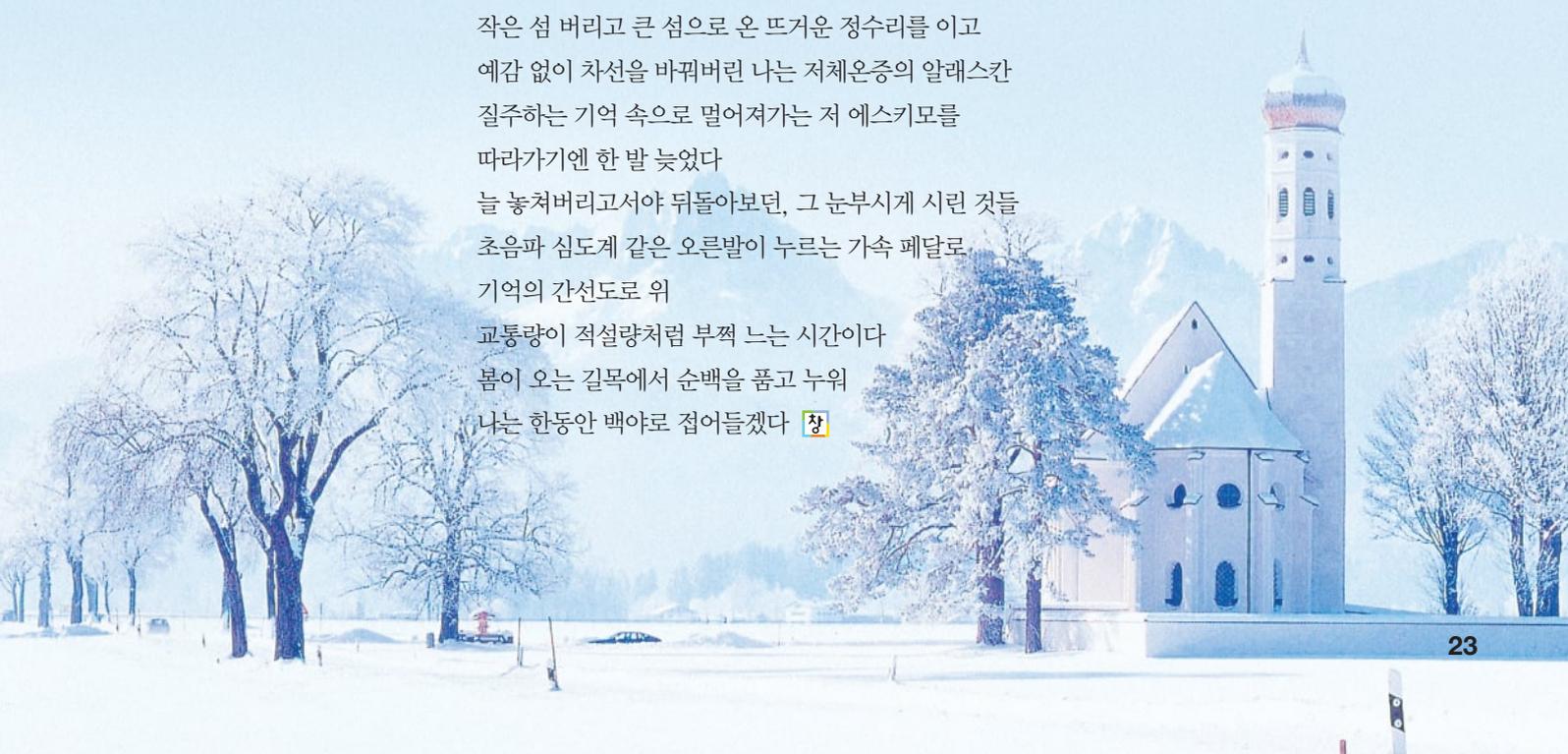
재일한인역사관의 강덕상 관장은 “갖은 차별 속에서도 국적을 유지하고 살아온 재일동포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한 축”이라며 “사진전이 재일동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장]**

알래스카

이월란(미국, 2011년도 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자유가 끊임없이 내리는 한들 앞에
 ALASKA 번호판이 끼어든다
 오래전, 군용비행기에 실려 잠시 날개 접었던 곳
 군 기지 휴게실 창밖으로 보이는 랭겔 산맥의 눈은
 트랩이 닿지 않는 하늘처럼 하얗고 높았다
 백인과 피가 섞인 여름에 잡은 물고기를
 호호 불며 이글루 속에서 동면하는
 알류트족의 '섬' 이 아닌 '땅'
 지루했던 침대의 방향처럼
 지도 위에 없는 낯선 도시, 낯선 활주로를 달린다
 알래스칸이 모는 알래스카를 따라간다
 언젠가는 사라질 베링 육교를 타고 시베리아로 달린다
 꿈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진 해수면 위로
 매머드를 쫓는 홍적세의 인간처럼
 다져진 새 땅을 밟고 아메리카로 걸어 온
 나는 빙하의 생물
 빙하빙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웅대한 기억의 크루즈는
 초저공비행도 가능하지, 우회 항행도 가능하지
 제트 엔진이 읽어내는 기억의 데이터는 끝이 없어
 작은 섬 버리고 큰 섬으로 온 뜨거운 정수리를 이고
 예감 없이 차선을 바꿔버린 나는 저체온증의 알래스칸
 질주하는 기억 속으로 멀어져가는 저 에스키모를
 따라가기엔 한 발 늦었다
 늘 놓쳐버리고서야 뒤돌아보던, 그 눈부시게 시린 것들
 초음파 심도계 같은 오른발이 누르는 가속 페달로
 기억의 간선도로 위
 교통량이 적설량처럼 부쩍 느는 시간이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순백을 품고 누워
 나는 한동안 백야로 접어들겠다 **창**



가을이 그려놓은 풍경화... 정선



단풍에 가슴 물들고 억새에 가슴 흔들리며...

정선 민둥산은 억새가 장관이다. 10월부터 억새꽃이 피어나 11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룬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길이 나 있어 억새를 만나러 가는 과정이 그다지 힘들지 않다. 정상부를 뒤덮은 억새는 오랫동안 같이 연습해 동작을 맞춘 무용수처럼, 추풍이 불 때마다 일제히 춤을 춘다.

가을의 또 다른 전령사인 단풍은 억새보다 화려하다. 새빨간 단풍나무와 샛노란 은행나무는 선명하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인적이 워낙 드물고 수목이 많은 정선에서는 단풍이 든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함백산 기슭에 자리한 정암사(淨巖寺)는 그중 으뜸으로 꼽힌다.

오대산 월정사의 말사인 정암사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가람

배치가 독특하고 볼거리가 다채로운 사찰이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수마노탑에 오르는 길은 호젓하면서도 평화롭다.

추억을 쌓고 이야기를 간직하다

아우라지는 송천과 골지천이 합류하는 접점이자 배가 정박해 있는 나루터다. 여량면에 속해 있는 이곳은 구슬프고 애처로운 후렴구가 심금을 울리는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민요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살던 처녀와 총각이 건너편에 있는 연인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했다는 사연이 깃들여 있다.

여량면 구절리역과 아우라지역을 잇는 7.2km의 선로는 정선선의 마지막 구간이다. 석탄을 운송하기 위해 개설된 철길에는 한때 화물열차와 통근열차가 활발히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석탄 소비

와 인구가 줄어들면서 구절리역까지 운행되는 기차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정선 사람들의 애환과 삶이 녹아 있는 구절리역은 기차역으로서의 효용은 상실했지만, 레일바이크가 다니는 명소로 거듭났다. 철로 주위의 정경이 워낙 수려해서 주말에는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레일바이크는 산자수명한 자연과 고요한 마을을 고루 통과하고 내리막과 오르막이 섞여 있어 40분 동안 지루할 겨를이 없다.

정선아리랑의 처녀 동상이 세워져 있는 아우라지는 풍광이 크게 바뀌었다. 뗏목이나 센다리가 없으면 강을 건너지 못했던 옛날과는 달리, 초승달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 튼튼한 다리가 놓였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의 절경을 발아래 마주하다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긴 산줄기는 정선을 관통하며 지나간다. 정선은 지세가 높고 험준해 능경이 어렵고 교통이 불편하지만, 풍경은 시원스럽고 장쾌하다. 곳곳에 숨어 있는 전망대에 서면 겹겹이 솟아 있는 산봉우리에 감탄사가 터진다.

정선에는 해발 1천m가 넘는 산과 그 사이로 난 고갯길인 재가 많다. 함백역 남쪽, 두위봉과 예미산의 중간에 자리한 새비재도 그중 한 곳이다. 여름이면 고랭지배추가 줄지어 심어져 대지가 온통 초록빛으로 변하는 새비재를 오르다 보면 푸른 소나무 한 그루가 눈길을 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남녀 주인공이 훗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며 타임캡슐을 묻었던 곳이다. 2011년 6월 소나무 주변은 영화처럼 타임캡슐을 보관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됐다.



5일장에서 강원도 특유의 정서를 경험하다

조용하고 한적하기만 한 정선읍이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릴 때가 있다. 정선은 물론 인근 지역의 상인들이 몰려오는 장날이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관광 열차가 운행될 만큼 인기가 높은 정선 5일장에서는 옥수수과 산나물 같은 특산물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향토 음식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항구의 시장이 싱싱한 해산물로 가득하듯, 산간 지방의 장에 가면 나물과 약초가 눈에 띈다. 평지라고는 거의 없는 정선에서 5일장의 대표 상품은 곤드레나물과 곰취, 황기와 더덕, 고사리와 헛개나무 등이다. 가을이 다가오면 말린 고추와 버섯, 각종 채소도 등장한다. 시골 장이지만 안심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가 분명히 표기돼 있고, 상점마다 가격의 편차가 크지 않다. 손수 재배하고 채취한 작물을 파는 사람도 많다. **창**



- 1 홀로 있으면 볼품없는 역사는 군락을 이뤘을 때 비로소 매력을 발산한다. 가을날 민둥산으로 향하면 사람 키만큼 높은 역사 발 속을 산책할 수 있다.
- 2 레일바이크는 산자수명한 자연과 고요한 마을을 고루 통과하고 내리막과 오르막이 섞여 있어 40분 동안 지루할 겨를이 없다.
- 3 정선읍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병방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그야말로 압권이다. 조각칼로 부드럽게 깎은 듯, 산허리를 유려하게 휘감아 도는 동강은 역경의 시간이 빚어낸 작품이다.
- 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 열리는 5일장을 찾는 사람들이 짐신을 구입하고 있다. 이곳은 전국 최대규모의 재래시장으로, 1966년 2월 17일 처음으로 열렸다. 시장에는 정선 토산품이 많이 나온다.
- 5 강을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한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으로 '아우라지 처녀' 동상이 강물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



2012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논문공모

‘2012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을 시상하고자 논문을 공모합니다. 재외동포 조사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 공모전에 국내외 신진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대상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 사이에 국내외에서 발표, 학위 수여 또는 심사완료된 재외동포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 선정된 후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에 게재 및 관련 학술대회에서 요약발표가 가능한 논문

2. 선정기준

- ① 학위논문의 학문적 완성도
- ② 정부정책 및 재외동포재단 사업과의 연계성
- ③ 논문주제의 시의적절성

3. 입상자 발표 및 시상

- 2012년 12월중, 입상자 개별통보 및 korean.net에 공지
- 시상내역
 - 우수논문상(5편)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학술장려금 각 3백만원
- 시상식 : 2012.12.21(금) 예정

- 국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시상식 개최

4. 응모방법

- 접수기간 : 2012.10.16(화)~11.30(금), 한국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별도양식), 학위증명서 원본
 - 응모논문 원본 2부 및 PDF(이메일 제출), 요약본(선택사항)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102호 재외동포자료실
OKF Library, #102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ro, Seocho-gu,
Seoul 137-072 Korea
- 문의처 : 강모세 과장 +82-2-3415-0093,
moses@okf.or.kr

5. 유의사항

- 응모논문이 표절작으로 판명될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조치함
-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음
- 참가신청서(양식), 지도교수 추천서(양식)은 korean.net에서 다운로드

독자후기 _ 박현재 일본 도쿄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정착한지도 어느덧 내년이면 20년이 된다. 정들면 고향이라지만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역사를 감안하면 외국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유명한 가전제품 판매점에 가면 한국산은 아예 없거나 제일 싼 제품이였다. 지금도 한국산 제품이 많지 않지만 품질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은 일본인도 부인 못하는 걸 보면 새삼 격세지감을 느낀다.

한류 열풍도 더해서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표현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국가의 위상이 동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

을 미치는지 실감하는 요즘이다.

먹고 살만해져서일까 요즘에는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온 재일동포들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나 뉴커머들의 모임에 참가해 볼까 생각도 든다.

내 아이들도 어느덧 초등학교를 마치고 내년이면 중학교 입학이다. 재일동포 2세인 셈이다. 한국인으로 긍지를 갖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동포재단에서 차세대를 위한 다양한 대회를 열고 모국 연수의 기회도 부여하는 소식을 접하니 더 반가운 마음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인 독도는 60여종의 식물, 129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720만 재외동포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재외동포재단 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런 한인입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